




제 9장

예수님의  
처음 사역






보아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  
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오신다.

이분이 메시  
야입니다!

선지자  
들이 예언  
한 바로 그  
분이야.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나는 네 스승이 아니다.  
나는 바닥까지 쇠하여야 하고  
그는 그가 전부가 될 때까지 번  
창해야 한다. 그가 진정으로 메  
시아, 곧 세상의 구원자이니 그  
를 따르라.





선생님, 선생님을 따라  
가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




빌립아,  
나를 따라  
오너라.

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나다  
나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  
를 기다려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있습  
니까?

과수원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  
습니다.



나dana엘,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나dana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찾았  
어! 요셉의 아들, 나  
사렛 예수야!




메시아를? 그분과 대화도  
했나?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 적이  
없잖아.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가난하고  
무지한 곳에서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시기로 되어 있는데.

와서 직접  
보게. 요한이 그  
에 대해 증언했  
고 안드레가 그  
와 함께 있어.








진실로,  
마음이 정결한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여기 있다.

빌립, 저분  
에게 나에  
대해 말씀  
드렸나?

아무 얘  
기도 안  
했네.




저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제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아직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저를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으로 감동을 받았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기적들을 볼 것이  
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야.  
와라.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안드레도 형을 찾아  
예수님에 대해 이야  
기해주러 왔습니다.


시몬, 요한이  
말하던 메시아를  
만났어.

와서 봐.

언제? 어디서? 어떤  
분이셔? 그를 따르는 사람  
들이 또 있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지만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제 배를 가족에게  
넘겨주고 당신을 따르  
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열 두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를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열 두 제자라 불리게 되지요. 그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성전에 바치기 전에 왜 돈을 바꿔야 합니까? 보아하니 이걸로 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물건으로 돈을 버니까요.

제사장들이 허락한단 말이오.

요한복음 1:40~42, 2:12~14




뭐하고 계시는 거지? 저  
한 자리에 거의 한 시간을 서서  
아무 말씀도 없이 저 줄을 꼬아  
뭔가를 만들고 계시잖아.

오늘 이익을  
꽤 많이 봤군. 직업  
을 갖고 일하는 것보  
다 훨씬 나아.






채찍! 채찍을 만  
드시는 거야!



v내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모두 다 치워라. 당장!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자기가 누  
구라고 저러는 거야?  
메시아라도 되나?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강도들이다.

와르르~쿵!





**휘!**

너희는  
과부들을 굶주  
리게 하는 독사  
의 자식들이다.

자기가 누  
구라고 저  
러는거야?

아아아!



와르르! 쿵! 획!

너희는  
남들에게 보  
이려고 오래  
기도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아니라 이  
웃의 돈을 사  
랑하지.


마태복음 6:5~7, 12:34; 요한복음 2:15~16; 디모데전서 6:10





다음 번에 내  
아버지 집에  
올 때는 너희  
죄를 회개하기  
위해 오거라.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그 성경말씀  
기억나나?

그래. 메시아가  
오시면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실 거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치지.

응, “하나님의  
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불처럼 나  
를 삼킬 것이다.”



당신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인가 보군. 오늘 당신 꽤 많은 문제를 일으켰소.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너희가 이 성전을 파괴할 때 볼 것이다. 삼일 후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야.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당  
신이 3일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터  
무니 없는 말이야!

이리 돌아와.  
체포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지만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시편 69:9; 요한복음 2:17~22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오, 예수, 집에 왔구나! 친구들을 다 데려오너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다.

어머니,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잠시 동안만 머물 겁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니 매우 기쁩니다. 그들에  
대해 이상한 말들을 들었는데, 나중에  
더 들어 보도록 하지요.

하지만 예수, 우선은 오  
늘 성경말씀을 읽어주시  
면 영광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의 습관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  
들의 종교적 예배 장소  
인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메시아에 관해 잘 알려진 예언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의 눈  
을 뜨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  
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A man with a full beard and long hair is shown in profile, looking towards the left. He is holding a large, unrolled scroll that fills the bottom half of the frame. He is wearing a white garment. A golden, ornate object, possibly a scroll holder or a decorative element, is visible near his mouth. The background is a simple, light-colored wall.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모독이오!

당신은  
목수의 아  
들일 뿐이  
오!.

침착하십시  
오. 지금 나  
갑니다.

돌로 쳐 죽여  
라! 자기가 메  
시아라고 주  
장하고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자 중 몇 명이 살던 호숫가 도시인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는 행복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  
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유대  
인이든 이방인이든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자여!  
우리를 내버  
려 두십시오.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  
님의 거룩한 자요.

그는 귀신  
들린 자요. 내  
쫓아야 하오.

우리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 귀신들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그를 여기 들여줬소?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자요.





귀신아,  
내가 명하니 이 사  
람에게서 나와 다  
시는 그를 괴롭히  
지 말아라!



물러갈지어다!

으아아!





이 자에게  
어떻게 한  
것ियो?

죽었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귀신들이  
떠났다. 이제 너  
는 자유하니 가  
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는 완  
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  
이 정상이 되었어.







베드로 아저씨, 부인이  
집에 오라고 하세요. 그 어머니  
가 고열로 많이 아프시대요.

곧 가겠다.



아, 여보, 너무  
무서워요. 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오. 선생  
님이 오셨소.





부인, 일어나  
나십시오!  
질병이 떠  
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네  
요! 치유되었  
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예수  
와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25~28; 누가복음 4:35~38



치유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통나무가 아버지에게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셨거든요. 하실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걸을 수 있잖  
아! 기적이야!

선생님, 제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이 멀었습니다. 도  
와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라'고 기  
록되어 있듯이 네 딸이  
이제 볼 것이라.







아빠, 아  
빠예요?

아빠,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도 몰랐는데, 제 생각보  
다 훨씬 멋있어요!






축제 기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잘못을 범할 때 그들을 용서하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A man with a beard, wearing a white tunic and a yellow shawl, stands on a raised platform in a classical building with columns. He has his right hand raised in a gesture of blessing or teaching. A crowd of people, including men and women in traditional head coverings, looks up at him. A speech bubble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man, and another is positioned below the crowd.


누가 너희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되돌리지 말고 오히려  
그의 복을 빌어라. 네가 다른 사람  
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어떨습니까?





만약 누가 네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대어 주어라. 폭력을 쓰지 말아라.  
이웃에게 걸움이 필요하고 네게 두 벌이 있거  
든 그에게 하나를 주어라. 그가 배고파하면 음  
식을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시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형제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43~44, 6:12, 5:8, 38~42, 5:21~22; 마가복음 1:34; 누가복음 4:39~41



너희는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말하니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  
음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범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은 진정 훌륭  
해 보이나, 속에는 악  
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흰색으로 칠한 무덤 같으니,  
겉모습은 좋아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  
의 뼈로 가득하구나.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A man with a dark beard and mustache, wearing a white shirt and a yellow robe, is shown in a dynamic, expressive pose. He has his right hand raised to his chest and his left arm extended upwards. The background is a simple, light-colored wall with a dark floor. Two speech bubbles are present: one at the top right and one at the bottom center.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으니, 많은 사  
람들이 그리로  
다니는구나.

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니 너희가 나를 통해 들  
어가면 영생을 얻고, 다른 길  
로 가면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당신은 왜 안식  
일에 사람을 고치시  
오? 안식일에 일을 하  
면 안 된다고 모세가  
명하지 않았소?

나의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나  
는 그가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할 뿐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고 있소. 그건  
모독이요! 그 벌로  
죽어 마땅한 모독!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듯이 아들  
에게도 그같이 하는 것이 하  
늘 아버지의 뜻이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올 것이요, 그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로 갈 것이다.



이분이 진정  
메시아야. 먼저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하시잖아.

그는 다른 종교지도  
자들과 다릅니다. 권세를 가지  
고 말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이 죽일까 두렵습니다.

가서 아내  
에게 말해  
야겠어.






왜 밤에 오는  
거지요? 예수님과 얘기  
하는 것을 누가 볼까봐  
창피한 모양입니다.

내가 가서  
따로 이야기  
하마.


선생님, 한 바리  
새인이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들의 지도자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 저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당신이 하나  
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  
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  
시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할 수  
없으니깐요.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한  
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니고데모,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다  
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 태어난다는  
이것은 어떻게 이  
루어집니까?



내가 말하는 영적 거듭남은 마치 바람과도 같이 신비하지만, 바람을 체험하듯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 21:5~9; 요한복음 3:1~14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  
다. 놋으로 만든 뱀을 보  
고서 즉시 나아갔지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의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내가 들어올려질 것이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늦밤을 봄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죄에 물린 자들은 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죄에서 치유되는 유  
일한 방법이요, 구  
원을 주기 위해 선  
생님이 막대기에 올  
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새로  
태어남은  
언제 일어  
납니까?

모든 사람이 보게  
끔 내가 들어올려  
진 이후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영적으로 더럽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하고 그들이 사는 도시조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가자,  
사마리아를 지나  
서 가야 한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내 아  
버지의 뜻이다.

주님,  
그 사람들은 더럽고  
무지합니다! 가난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예요.



정오 썸에 그들은  
성읍 밖에 있는 우  
물에 다다랐습니다.

혼자 계실  
건가요?

너희는 성읍에  
들어가서 고기를  
사라. 나는 이 우물  
가에서 기다리마

그래.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여인들이 우물에 올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1~8




내게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  
했을 것이며 내가 당신에게 생명  
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흥! 당신같은  
유대인이 왜 나같은 사  
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  
라고 하지요? 당신 유대인  
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고요? 물을 길을 통도 없  
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  
명수를 길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이 생명  
수를 내게 주세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지  
만,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의  
영혼 안에 영생의 샘물로  
있을 것ियो.


A man with a beard and orange robe is speaking to a woman in a white robe who is kneeling. The scene is outdoors with trees in the background.

가서 남편을  
불러오면 이 물에  
대해 말해주겠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당신은 남편이  
다섯 명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사는 사  
람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내 비밀스런 죄  
를 알고 있다니  
당신은 분명 선  
지자예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  
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  
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소. 그는 진리를 믿고 영으로 그에게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시오.

메시야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가 오시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거예요.



당신은 지금  
메시아와 얘  
기하고 있소.





가서 친구들을 찾아  
말해줘야 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들간 더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때에는, 남들이  
보는 공적인 장소에서 주  
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 하늘에 계  
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  
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종교적 위선자처럼 공개적인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또한 기도할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복하여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공적 장소에 서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자랑한다.



A man with a beard and long hair, wearing a white shirt, is shown from the chest up. He is looking upwards and to the right with a thoughtful expression, his right hand raised with fingers spread. The background is a bright blue sky with white clouds.

부자가 되려고 힘과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말아라. 부유한 자는  
누구보다도 근심이 많으며, 자기  
의 부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  
지 않을 천국에 쌓아  
두어라. 너희는 하나  
님과 돈, 이 두 주인  
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사랑  
하고 하나는 증오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 날이 늦었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저희  
와 함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플텐데, 음식을 살만한  
도시들은 다 멀리 있어요.

지금 사람  
들을 보내서 음  
식을 살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 도시락을  
가지세요. 어머니가 떡 다섯  
덩이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  
를 싸주셨어요.




모두들  
앉게 해라. 우  
리가 음식을 차  
려주자.

무엇으로요?

마태복음 14:15, 6:1~7, 6:19~21





보자, 오늘  
식사는 떡과  
물고기가 되겠구나.

큰 광주리 12개를  
빌려서 음식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여라.

하지만 선생님,  
한 사람을 먹이기  
도 부족한데, 어떻  
게 5천 명을...



땅에서 음식을  
나게 하시는 우  
주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찬양  
을 받으소서.





저 작은 도시  
락을 저 큰 광주리  
로 쏟아부으시다  
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지?





저것 봐! 저 많은  
음식이 다  
어디서 났지?

마태복음 14:19~21; 누가복음 9:16~17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다  
... 모세처럼.

어머니가 믿지  
못하실 거야!



사람들이 광주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음  
식은 계속하여 자꾸  
자꾸 생겼습니다.





선생님, 모두들  
먹었는데 광주리는  
여전히 가득 차 있  
습니다. 비우지를  
못하겠어요!

남은 음식을 모아놓고  
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쪽에 가 있거라. 나  
는 나중에 가마. 지금은 산에 올  
라가서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 호수 저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4:20~23

예수님은 종종 홀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중간까지 나갔을 때  
심한 폭풍이 일어났고, 그들은 배  
가 가라앉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심  
한 폭풍은  
처음이야!

오래 견디  
지 못할 것  
같은데!



가라앉  
겠어!

귀신이다!






귀신이야!

걸고 있어!

물 위에서 사람  
이 걸고 있어!



주님, 만일 당신이시라면, 당신처럼 저도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야, 내게 오너라.





베드로! 안돼!

주님,  
제가 갑  
니다.

베드로는 진짜 물 위  
를 걸어 예수님을 향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는 보이는  
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은 그의 믿음을  
앗아갔고, 그는 가  
라앉기 시작했지요.



주님,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14:29~30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  
했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를  
걸어 베드로를  
다시 배로 데려  
가셨습니다.

베드로! 자  
네가 물 위  
를 걸었어!








평온하고  
잠잠하라.

예수님이 폭풍을 꾸  
짚자 폭풍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4:31~33, 4:38~41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  
나님.

이스라엘  
의 그리스  
도시여.



이후.


요즘 축제 때라 정말  
북적거립니다. 온 나라 방방곳곳  
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게다가  
로마나 이집트같이 먼 나라  
사람들도 옵니다.

연못가로  
내려가자.

저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여기 있  
었습니다.








온전케 되  
기를 원하  
시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  
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당신이 예수님이시지요? 당신의 기적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잔인한 농담이군.  
저 불쌍한 사람 38년 동  
안 걸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거룩한  
안식일이오. 우리의 평화를  
흔뜨릴 자격이 없을텐데.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소.  
그에게 너무 많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


이 예수라는 자,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메시아?

그렇소,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는 신임을 샀소.





저 사람  
다리! 다리가 길  
어지고 있소!



일어나고  
있소!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예수가 메  
시아다!



어째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요?

모세는 안식  
일에 쉬라고  
명하였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를 꺼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다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안식일  
에도 일하시고, 나는  
그가 하시는 것을 본  
대로 할 뿐이다.

누가복음 14:5~6;  
요한복음 5:9~17





붙들어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해.

저 자가 하나  
님이 자기 아버지  
라고 한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  
게 삼고 있어!

죽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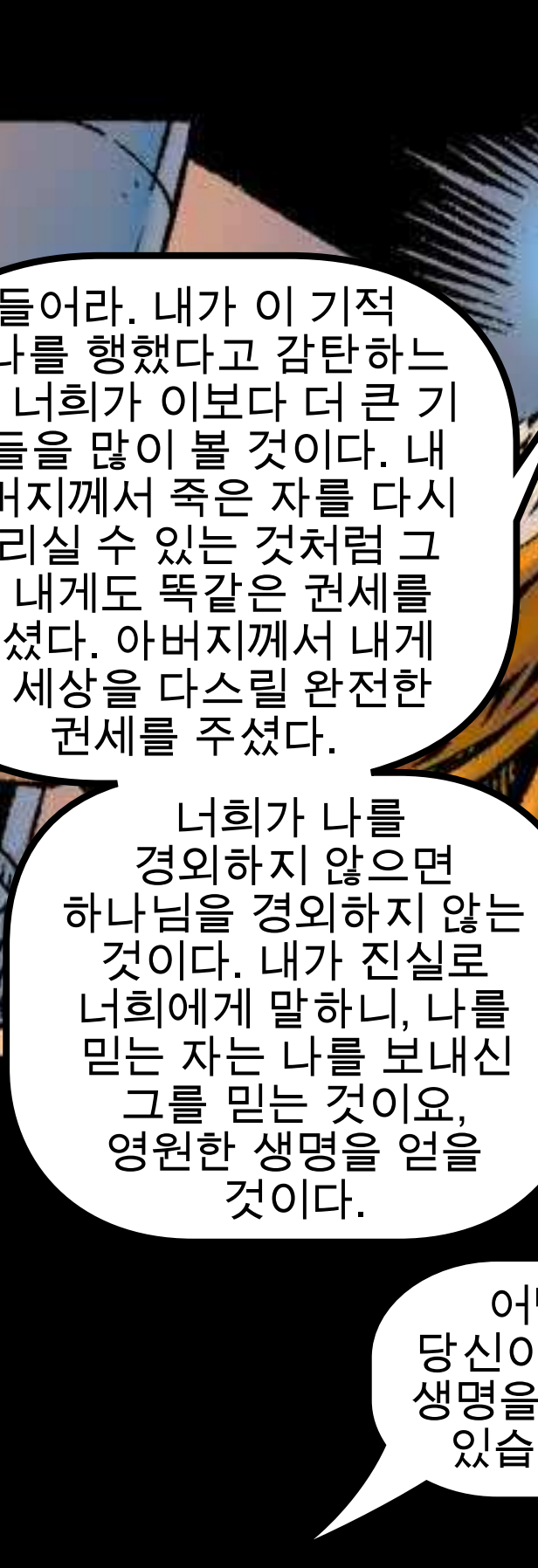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사람을 죽이  
겠다는 것이요?

법을  
모독한  
것 없소.

그가 우리의  
법을 모독하  
지 않소?

그가 뭐라고 하는  
지 들어보시오.






들어라. 내가 이 기적 하나를 행했다고 감탄하느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기적들을 많이 볼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세상을 다스릴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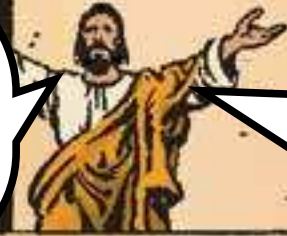


죽은 자가 내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에  
선을 행한 자들은 영생으로 부활될 것이나,  
악을 행한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독이요!  
아무도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소. 하  
나님만이 영생을 주  
실 수 있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내가 올  
것을 예언했고, 말씀에도 그  
렇게 기록되어 있다. 많은 예  
언이 나에 관한 것이니 성경  
말씀을 찾아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키지  
못한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대적한 증언이  
될 것이다.






이 자가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자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저들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소. 이 사람  
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알고 있소?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모를 거라고 가르치는  
데, 이 사람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알지 않소?





너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고 말하지만, 나는 이 세  
상에 혼자서 온 것이 아니  
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나 너는 내 아버  
지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그가 나를 너희  
에게 보내셨다.

내 말을 어떻  
게 들으셨지?



그는 모든  
것을 아셔.

이 분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  
된 메시아다!

메시아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리  
라 기대하겠나?






저 모독자를 당  
장 체포하라!

이번엔 심각  
해 보이는데.

백성들이 그를  
믿고 있어. 그  
를 잠잠하게 만  
들어야 해.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니 저희가 배부  
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라 불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여라.

범죄자같  
이 말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이  
그의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  
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들 말에  
이 사람이 4000년 예  
언에 대한 응답이래.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너희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왜  
잡지 않았느냐?

그 사람같이  
말하는 자는  
여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  
해 말하더군요.

뭐? 그가 너희들도 속였  
느냐? 학식 있는 지도자들과 바리  
새인들 중 그를 믿는 자가 있느  
냐? 이 예수는 죽어야 해!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합니까?

니고데모, 당신도 갈릴리  
출신의 그의 추종자 중 하나요? 말씀  
을 찾아보시오.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  
이 아니요.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오.

마태복음 5:6, 9; 요한복음 4:14, 7:45~52





일반 백성을  
거짓말로 속  
이는 자야.


모든 것에  
정답을 갖고 있  
는 것처럼 보입  
니다.

좀 더 똑똑한  
변호사를 보내  
그의 말에서 꼬투  
리를 잡아 보면  
어떻겠소?



아! 그런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있소.  
아주 똑똑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지.






그래서 변호사가 예수님께 도전을 던지러 왔습니다.

율법이 뭐라 하느냐?

선생이여, 무엇은 해야 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모든 마음과 영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 하라고 써 있습니다.



네 답이 옳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  
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야기  
하나를 해  
주마.

그렇다면 어느 이웃  
입니까? 설마 이교도 로마인까  
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시  
는 건 아니겠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로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모  
든 것을 잃고서 죽게 된 채  
쓰러져 있었다.

마침 한 제사  
장이 길에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서 멈춰  
도와주지 않고 그를  
피해 지나갔다.

이와 비슷하게, 성전에서  
섬기도록 선택받은 레위인도 지  
나갔지만, 잠시 멈춰 상처입은  
사람을 보기만 했을 뿐, 도와  
주지는 않았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이웃을 사  
랑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  
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경멸하고 더럽게 여기는 사마  
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는 옷을 벗  
긴 채 길에 쓰러져 있는 다친 사람  
을 보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  
실에 개의치 않았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멈춰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씻어내  
고 감아주었다. 그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 행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 거기서 쉬면서 회복하게 해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돌고 있으니깐. 곧 침대에 눕게 해줄게요.



2주간 저  
사람의 숙식 비용을  
내겠습니다. 돌보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이 길을 지날 때  
더 드리지요.






너는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제 말해  
보아라. 이 사람의 이웃은  
셋 중 누구였느냐?

물론 자비를 베풀  
는 자입니다.


굉장하군!






그러면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  
과 같이 이웃을 사랑  
하여라.





바보 같으니!  
예수가 저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전에  
빨리 데리고 나  
가시오!

이 무슨 미친  
가르침인가? 실질적이지  
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아  
무리 해도 사랑에 반응하  
지 않는단 말이오.



너희가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경멸하여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5:43~44; 누가복음 10:36~37





<https://goodandevilbook.com/>